東西의 軍縮問題

국방기술과 관련장비 그리고 국방성의 획득과정에 대한 새로운 정책방향이 있다면, 그것은 INF협정 이후 미국과 NATO 동맹국들이 어떻게 해야 바르샤바조약기구(Warsaw Pact)의 침략을 저지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면밀히 살펴 이해하려 했던 의도에서 나온 정책일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 참여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西方世界 동맹국들이 유럽내에서의 재래식 전쟁능력을 量的, 質的으로 强化시키든지 아니면 소련과 WP회원국들에게 INF협정에 뒤이어 東西 兩陣營이 상호 군축을 감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시켜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일치하였다.

어떤 분석가들은 서방의 군사훈련과 준비태세가 소련의 숫적 우세를 상쇄시키고 있으므로 NATO軍과 장비의 현대화 계획이 축소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양측이 최소한 3 : 1의 비율로 군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어떤이들은 5 : 1의 군축이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1989회계년도 美 국방예산을 수립했던 사람들은 non-NATO 계획을 지지하고 있다. 국방성의 최고 계획들은 NATO의 요구를 간접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다.

이 계획들은 대당 가격이 2억7천5백만불에 이르는 B-1폭격기, 대당가격이 9억6천5백만불인 AEGIS 순양함, 대당가격이 1억5천4백만불인 TRIDENT II 미사일과 1억9천1백만불인 MX미사일들을 포함하고 있다.

레이건 대통령이 국방예산을 2배로 증대시키기 시작했던 1981년과 마찬가지로 미국은 유럽내에서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필요한 전투장비들, 그중에서도 전차, 보병전투차량, 地對空미사일(SAMs), 지뢰, 화학무기 생산과 부대규모등에서 아직도 소련에 뒤지고 있다. 다만 C^3I, 대전차무기, 포, 해상발사 크루즈 미사일등의 분야에서만 대등한 수준을 유지할 뿐이다.

최근에 美 국방장관 Frank Carlucci는 軍수뇌들에게 1989회계년도 획득계획을 조정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NATO와 관련된 기타 계획들 중에서 조정 건의된 것은 對裝甲무기체계와 輕헬리콥터 실험 효용성 변형이었다.

그러나 꽉 짜여진 예산에 맞추어 다음과 같은 계획들도 병행되고 있다.

(1) 균형잡힌 기술계획(BTI)
(2) 재래식 방위계획(CDI)
(3) NATO 방위계획(NDI)

BTI는 美 議會가 승인하여 자금이 조성된 계획이다. 이것은 fire-and-forget 무기류,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하는데 소요되는 실제 시간, 컴퓨터 및 C^3I와 관련한 초전도, 마이크로 웨이브 시스템등에 대한 고도 기술에 대한 연구를 요구한다.

CDI 역시 의회에 의해 승인되어 자금이 조성된 계획이다. 이 계획은 이미 개발되었거나 거의 개발 완료단계에 있는 전투장비들을 포함하고 있다. NATO 동맹국들은 공동으로 생산 또는 획득할 수 있으며, WP에 대항하여 「강력한 방어(robust defence)」를 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힘의 승수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NDI는 前記한 두가지 계획을 조화시킨 것이다. NDI는 NATO 회원국 정부에 공동 역할분담과 가능하다면 언제 어디서건 힘과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가격을 극소화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과 장비를 획득함에 있어서 함께 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NDI의 도움 없이는 앞의 2가지 의안이 실현되

기 어렵다.

1989회계년도 국방예산 청구액에는 BTI와 CDI 계획을 위한 수십억불이 따로 책정되었다.

힘의 균형정책의 또다른 목표인 非武裝(disarmament)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다시 거론된 재래식 무기 통제 즉 새로운 차원에서의 목표(Objects)」라 命名된, 12월말에 Rand社에 의해 발표된 美 공군구매에 대한 연구가 5 : 1의 군축비율만이 NATO와 WP의 힘을 적절히 균형을 이루게 하고, 전쟁의 위험을 극소화시킬 수 있다고 충고한다.

이것은 WP가 20개 사단을 해체할 때마다 NATO는 3내지 4개 사단을 제거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Rand社의 연구는 5만2천7백대의 戰車를 보유한 WP와 2만2천2백대의 戰車를 보유한 NATO를 비교해 볼 때 NATO가 보유한 미국 전차의 우수한 성능과 이에 부착된 무기들을 감안하면 군축비율을 2 : 1로 잡을 수도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하지만 비율을 너무 낮추게 되면 NATO는 유럽의 중앙전선을 방어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戰車도 보유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만일 2 : 1의 군축비율이 NATO가 보유한 1만3천7백문의 포와 WP가 보유한 4만6천5백문의 포에 적용된다면 서유럽동맹은 砲 火力不足을 맞게될 것이다.

다시말해서 軍備均衡을 이루는데 있어서 감축의 수준은 비율만큼이나 중요하다. 즉 양측이 어떤것을 얼마만큼 감축해야 하는가에 있어서 質的인 척도나 數的인 척도는 각기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군축이 개별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새로운 이론이 아니다. 군축은 양측이 도달하기를 희망하는 전략적 측면과 숫자뿐만 아니라 장비의 품목, 지형, 전술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5 : 1의 軍 감축과 3 : 1의 전차 또는 포의 감축은 각 항목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제조업체들은 금년 9월 워싱턴에서 개최예정인 공동방위(Comdef)회의 및 전시회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아이러니칼하게도 이스라엘의 방산제조업체들은 참여하지 않을 것 같다. 금년은 이스라엘이 미국과 기타 동맹국들 특히 Comdef의 주요 지지국가인 영국, 독일, 프랑스등으로 부터 가능한한 많은 지지를 얻어내야 하는 해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더욱 의아스럽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더불어 미국의 1988, 89회계년도 예산에서 상당수준의 안보지원자금을 제공받게 되었다. 예루살렘은 미국의 국가 방위사업중에서도 상당부분을 원한다.

하지만 미국과 기타국들간의 MoU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고안된 회의인 Comdef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 경제적 밀착관계에 아무런 의미도 만들어 내지 못한다. 이러한 지지가 이스라엘 정부에 언제나 주어지는 것은 아닐 것 같다.

터어키는 2월에 워싱턴에서 또다른 방산교역회의 및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서 General Dynamics社는 터어키와 F-16 추가판매계약을 완결하였고, FMC社는 터어키 장갑보병전투차량 개발업체로 지정되었다.

또한 General Defence와 Armtec는 터어키軍에 곧 상당량의 caseless 포탄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터어키는 미국으로 부터 이스라엘이나 이집트만큼의 안보지원을 받고있지 못하다.*

〈MILTECH 88/3〉

— 해외사업부 (譯)